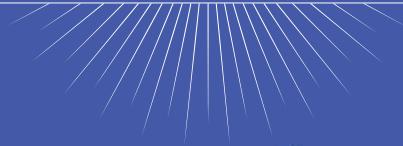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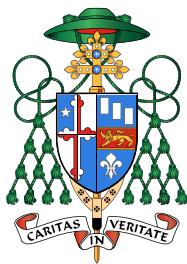
선교하는 제자의 길을 비추어 주는 밝게 보이는 빛

복음 중심의 본당 계획에 관한 사목 교서
볼티모어 대교구 월리엄 E. 로리 대주교





선교하는 제자의 길을 비추어 주는
밝게 보이는 빛



볼티모어 대교구 윌리엄 E. 로리 대주교



1/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는 인류의 빛(Lumen Gentium)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모인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이 밝게 보이는 빛이 교회의 얼굴로 드러내 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교회헌장 (인류의 빛), 제 1 항>

예

나 지금이나 주교들은 사목 교서를 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볼티모어 대교구에 착좌한 이래 여러 주제에 관한 사목 교서를 쓰려고 몇 번 시도하였습니다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을 종이에 적거나 소셜 미디어에 쓰는 것을 싫어해서는 아닙니다. 이야기한 것을 글로 옮겨 적거나, 칼럼을 쓰거나 혹은 짧은 묵상의 글을 쓰기는 하니까요. 사목 교서는 아무래도 길고 복잡해 잘 읽혀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볼티모어 대교구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성직자들과 교회의 여러 기관 혹은 본당 지도자들과 가졌던 모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모임의 주제는 볼티모어 대교구의 중심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내리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 28, 29).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초대 교회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제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준비가 되었는가? 마음과 영혼이 이 일을 감당할 만큼의

자질을 갖추었는가? 우리 본당은 이 시대의 선교 과제 앞에 놓인 도전에 응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대교구 내의 아홉 개 카운티와 볼티모어 시를 향해 가톨릭 공동체가 함께 역량을 모아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방법은 무엇인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겠는가?

강론이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로부터 혹시 이 강론을 사목 교서로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교로서 해야 할 일이기에 사목 교서를 쓰겠노라 답을 하였습니다. 성령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렸던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 편지를 발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시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노력을 지속하게 하시며, 이제와 앞으로 볼티모어 대교구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나에 대해 돌아 보기





제

개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하는 제게 이런저런 주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은 신앙의 이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저에게 주교로서 제가 그리스도와 가지는 만남의 시간들이 과연 어떤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그 시간이 따뜻하고 친밀하며 저에게 변화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냉정하고 격식만 차리는 만남인가를 물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어” (루카 24,45)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보게끔 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저에게 교구민과 동행하라 하십니다. 주교에게서 “양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양들과 함께하고, 함께 걸으며, 보살피고 경청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그리고 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는 어떤 분”을 함께 모시고 간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여러분의 주교인 제가 더 철저해 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복음화를 제

사목의 근본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제 자신이 먼저 선교 제자가 되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들 또한 선교 제자가 되도록 돕는, 주님의 도구가 되라 하십니다. 성하께서는 사목에 대해, 특히 주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강론에 대한 충고, 자기 도취와 같이 사목에 방해되는 유혹 등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교황께서는 복음을 주변인들, 다시 말해,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과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들,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던질 수도 있겠지요. “저런, 난 신부가 된 지 38년, 주교로서 20년간 일했어. 그런 일들은 충분히 했잖아? 여태 내가 한 일이 하찮은 일들이었던 말인가? 내 수고가 모두 잘못된 거고, 주님의 왕국에 열매를 맺는데 전혀 도움이 못됐던 말인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라” <사목헌장 Gaudium et Spes, 제4항>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대의 징표를 읽으시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황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주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재어 볼 방법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주관적인 느낌일까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아 본다면서 단순한 자기 성찰로 빠질 위험이 없진 않을까요? 사도직 수행에 관한 생각에 빠져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쉽게 잊진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마르코 복음 6장 31 절의 말씀대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면서”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고백 성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하는 삶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말씀으로 산상 설교의 여덟 가지 참된 복, ‘진복팔단’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원해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향해 쉬임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산상 설교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리신 주님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려 놓고자 하시는 초상화와도 같습니다. 진복팔단을 깊이 성찰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를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모든 이를 위하여 수난받으심을 깨닫고, ‘복음의 기쁨’이라는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고치며, 각인하게 되면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나면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진정으로 그분의 중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루카 24, 13-35)가 사목적 동반의 좋은 모델입니다. 두 제자는 실망하고 침통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을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보진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문제를 경청하셨습니다. 말씀의 전례를 행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해 주시고, 하느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며 성경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엠마오에 다다라서 주님께서 더 멀리 가시려 하자 신앙에 새로운 불이 붙은 제자들이 머물러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성찬의 전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복음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징표는 무엇이고 세밀히 조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숫자도 줄고 있지만 천주교는 훨씬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2년 전 통계에 따르면 9천7백만 가톨릭 신자 중에 1천8백만 명만이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례하고 있으며, 그 중 3백만 명이 미사 외의 본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본당에서 겨우

교황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주교로서 오늘 이곳에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복음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0%만이 미사에 참석하여 전체적으로 성사 생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와 견진을 받고 고백성사를 하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화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많은 이들이 성사를 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나 생활의 뿌리를 주님의 진리와 사랑에 깊게 내리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문화가 바뀌고 있으며 바뀌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영적’이 되어 가지고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공유하고

성 바오로, 복음화의 모범

사도행전에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복음화를 시도하였는가가 나옵니다. 아테네에서 바오로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유다인들과는 달리 그리스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성경과 모세의 율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로 가서는 지식과 문화의 중심인 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많은 이방 종교의 신과 철학적인 주제를 토론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문화와 복음을 연결하는 바오로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숙제를 미리 해 온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를 살펴보고 그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하느님이시라 설명합니다. 그리스 시인 에피메니데스는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그 안에 우리는 살고 존재한다”고 하며 인간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신이라 하였습니다. 듣는 이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에피메니데스 같은 그리스 시인을 인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성 바오로는 철학자들의 하느님과 성서의 하느님을 연결하였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 바오로의 지적이고 담대한 선언은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비웃는 이도 있었고,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하는 이도 있었으며, 믿고 제자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 바오로가 아레파고스에서 했던 연설을 세속 문화를 복음화하는 모델로 삼아 연구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대담히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적 가치에 바탕을 두지 않는 영성은 쉽게 시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긴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젠 사회 전체가 종교적이지도, 영적이지도 않게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공 장소에 종교적 상징물이 없어지고, 공적인 곳에서의 신앙 표현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전쟁을 벌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시대에 우리가 살펴하는 복음이 주변 문화를 끌어 들임과 동시에 이에 도전해야 할 과제가

세례날에 우리가 받은 선교 사도로서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 안으로부터 문화의 복음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주변 문화에서

취할 점을 찾아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화의 복음화는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제게 깊고 개인적인 일에까지 관심을 갖고 세상의 문화에 맞서라고 권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사제로서, 부제로서, 혹은 본당의 지도자, 본당 구성원 중 하나로서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이 이 권유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교황의 인상적인 말 몇 마디나 상징적 제스처에 매달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그분 부르심의 본질을 깨뚫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세례날에 우리가 받은 선교 사도로서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동료와 함께 준비하기





어

떤 것이 저에게 진리라면 가톨릭 센터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진리일 것입니다. 320 Cathedral Street에 있는 가톨릭 센터 건물에는 우리 대교구의 주요 사무실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착좌한 이래 이 건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핵심 사업”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핵심 사업은 복음의 선포 (Kerygma)입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침, 기적, 죽음과 부활, 승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의 이야기와 함께 전하는 일입니다. 눈앞에 닥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목적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하겠습니다.

가톨릭 센터 내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Christian Life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이미 우리

가톨릭 센터 직원은 선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당, 학교,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교황 성하께서 말씀하신 ‘선교 지향적 변환’이 필요합니다.

교구 50여 개 본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그 자체로 복음화 사업을 위한 목적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맞이 하는 데 중요한” (펠리 1, 9-11 참조)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6주 동안 식탁에 모여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학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그냥 자신들의 개인 생활에 그리스도와 믿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가톨릭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 단계 프로그램 중 첫 번째 단계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길 건너에 있는 주교좌 성당에서 하는 성체 조배, 기도, 묵상 등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순 기간에는 가톨릭 센터 직원들이 개인 묵상이나 믿음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가톨릭 센터 직원은 선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당, 학교,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교황 성하게 말씀하신 ‘선교 지향적’ 변환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업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선교 사명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구 내 복음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를 통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생각합니다. 행정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업무에

매몰되어 업무를 생산하는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화 부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해서, 복음화 부서 내에 작은 그룹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이 부서의 역할과 관심을 바꾸려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교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고, 본당이나 여러 단체에 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은 결혼과 가족 생활을 육성·장려하고 교리 교육과 외부 선교를 하는 등, 본당과 학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구청 스스로가 선교 지향적으로 변해가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4/본당을 준비시키기





교 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당신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심과 동시에 도전을 던지고 계십니다. 교황 성하는 복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을 갖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권합니다. “주님의 자애는 아침마다 새롭다.” (애가 3,23). 이런 정신에 입각하여 저는 ‘선교하는 제자가 되자’ (www.archbalt.org 참조)라고 하는 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서에 기술했듯이, 그간 우리가 한 일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읽고 공부할 때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 ‘선교하는 제자가 되자’를 가톨릭 센터에서 발간하는 수많은 문서들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심 본당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 따라야 할 원칙을 알려 주는 지침서로 삼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문서가 볼티모어 대교구 내 성당들의 미래를 기획하는 그럴듯한 문서 정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서는 이 사목 교서와 함께 선교로의 방향 전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교구에서 복음 전파라는 기본 사명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당이 본당 사목구 안팎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복음적인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야 합니다.**

처음 볼티모어 교구에 왔을 때부터 복음화에 근거한 교구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한 문서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교구 사제 협의회 사제들에게 회람을 시켰더니 ‘특별히 새로울게 없고’ 다만 복음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새겨듣고 초심으로 돌아가 저 자신, 저의 동료 신부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가톨릭 센터 직원들부터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존의 방식에서 선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교구 본부나 각 본당 할 것 없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및 그 뒤를 이은

밀레니엄 세대는 누구인가?

밀레니엄 세대는 오늘날의 청년과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 신앙 생활에서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가톨릭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신비와 전통, 공동체 체험과 같은 기회를 찾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밀레니엄 가톨릭 교우들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당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들도, 비록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본당 교우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합니다. 창의적이며 그들에 맞갖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들을 본당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방법이 이미 본당 활동을 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를 통해 이들에게 접근하는 일입니다. 또래 집단을 밀레니엄 세대 선교 제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황님들께서는 이것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또한 <복음의 기쁨>에서 교회의 구조 개혁을 촉구하시면서 “사목 쇄신을 요구하는 구조 개혁은 이러한 의미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곧 모든 구조를 더욱 선교 지향적으로 만들고, 모든 차원의 일반 사목 활동을 한층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것으로 만들며, 사목 일꾼들에게 ‘출발’하려는 끊임없는 열망을 불러 일으켜, 예수님께서 우정을 맺도록 부르신 모든 이에게서 긍정의 대답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제 27항)고 말씀하십니다. 교황께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우리 안에서만 머물려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교황께서는, “본당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단체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본당 신부와 공동체가 얼마나 열린 마음과 선교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지녔는지에 따라 본당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당은 본당 교우들의 생활 터전 한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는 본당이 교우들과 그 가정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선택된 자들로만 이루어져서 교회의 다른 구성원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이는 쓸모없는 조직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제 28항)

복음화를 위한 첫 관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고쳐 주기를 청하면 그들을 꾸짖고 내쫓곤 하였습니다. 같은 일이 바르티메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마르 10, 46-52). 바르티메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는 그를 방해하였습니다. 다행히 바르티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 찾는 일을 포기하였을까요? 교회에서 멀어져간 사람들이나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새로 교회에 나온 이를 모두가 환영하며 반기는지, 아니면 사교 클럽에서 신참자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성당에 새로 온 교우거나 혹은 냉담하였다가 다시 나오는 교우를 그저 데면데면하게 대합니까, 아니면 환영하며 동료 제자로서 대합니까? 선교의 전략 중 하나로 우리 본당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첫 관문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어떨까요?

- 사용하기 편한 전화 시스템
- 정보도 제공하고 영감도 얻을 수 있는 웹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 성당 문 앞에서 맞이하는 따뜻한 영접
- 사제나 본당원들의 친밀한 환영
- 본당 활동이나 친목 모임으로 초청하기
- 편리하고 자주 있는 고백 성사의 기회
- 잘 짜여진 성인 예비자 교리반

이런 방법과 다른 여러 방법으로 본당은 예수님에게 가는 방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당이 본당 사목구 안팎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복음적인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당은 본당 사목구 내 교회의 현존이며,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대화하며 아낌없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제 28항). 본당이 복음적인 변화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부나 교회 사도단체 임원이 복음전파의 매개체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수많은 선교하는 제자가 교회 구성원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선교하는 제자들은 사목평의회나 재무평의회 같은 데서 봉사하지는 않더라도, 성체 봉사자나 현금 위원이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모든 본당 활동에서 그 구성원을 복음 전파자로 훈련하고 활동하도록 격려한다” (제 28항)고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냉담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모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나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들, 또 삶에서 어떤 의미나 안정감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본당, 본당 그룹은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성당에 나오면 좋다는 말만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길 바라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내고 본당 내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의도적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본당 교우 혹은 예비자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흑인 가족뿐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 이주민들이 포함됩니다. 또 수세대에 걸쳐 뿐리내린 유럽 계통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신흥 세대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 가톨릭대 총장이었던 윌리엄 바이런 신부가 어떤 잡지에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가 본당을 떠날 때면 ‘마지막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3년에 개최된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브라질의 주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교황님께서는 “

선교를 위해 본당끼리 함께 일하기

본당끼리 공식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본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당 공동체에 이익이 되고 복음 중심의 사목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력과 우호적 접근을 통해 교황께서 본당과 본당의 지도자들에게 바라시는 창의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미 맺고 있는 다른 본당과의 기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본당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다른 본당과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비슷한 규모의 본당이 관심 사항이 비슷하고 인접해 있다면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몇 개의 본당으로 만든 본당 그룹(Parish Cluster)이 너무 클 수도 있고, 너무 작을 수도 있고 혹은 사목적으로 협업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교 계획이 진행되어 가면서 본당 그룹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단순히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점보다는 선교 목적의 협력이 가능한 것을 중점으로 살피려 합니다. 어느 교구에서는 ‘그룹’이라는 말보다 ‘협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해 두지요. 선교 목적상 몇 개의 본당을 본당 그룹으로 묶었다고 해서 본당을 합칠 계획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선교 전략상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고려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물으려 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중심의 본당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우리 대교구의 각 부분에서 (그게 지속적으로 신자 수가 줄어드는 지역이든 폭발적으로 늘어 나는 지역이든)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계속 기도드리고 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사제의 수가 부족한 현실에 당면해 있음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물으려
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 줄 수 없다.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겪은 볼티모어 소요와 폭력 사태는 우리가 본당이 되었든, 병원, 학교, 기타 자선 단체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사목적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볼티모어 시내에 있어야 함을 강력히 일깨워 줍니다. 선교지향을 위한 쇄신으로서 복음 중심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이것입니다. 즉, 교회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과 활동을 하며 그 자리에 있느냐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위해 모든 교회 단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복음화 중심 계획의 두 번째 원칙은 대교구 내 모든 교회가 그룹 (cluster) 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그룹의 규모나 형태는 다를지언정, 모든 교회는 이 그룹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결정은 우선적으로 각 본당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룹은 해당 지역 내 사람들에게 사목적 도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계획하여 실행으로 옮기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같은 그룹에 속한 교회들은 여러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연결되어 학교나 자선 단체, 의료 기관을 포함, 자신들의 구역에서 다른 교회 단체와 협력하게 됩니다. 이 그룹 관계는

가톨릭 교회의 복음 전파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지형적인 혹은 기타 장애물을 타파하는 친교의 정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룹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내 가톨릭 교회의 현존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 몇 군데를 단순히 좀 더 큰 다른 교회와 묶어 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950년대 미국 내 몇몇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합병되었다가 서로의 약점에 치어 결국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의 결정이 우리 평신도 가정의 특별한 도움을 바탕으로, 각 교회가 사목, 교육, 의료 그리고 사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사람들을 함께 묶는 복음화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큰 유혹





이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뿌리쳐야 할 네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유혹은 소수의 자문위원과 모여 자료를 검토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톨릭교회의 위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발표하며 그 결과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향식, 또는 ‘최종 결정’ 방식의 사목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목 계획은 반드시 사목적 요구와 기회에 맞게 교구의 지도에 따르는 사제에 의해서 지역 가톨릭 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 추진을 위해 사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본당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대화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거 전에도 들었는데”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계획이 수립되었고 사라졌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황 성하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을 보면 성하께서 갖는 선교의 절박한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당연히 이같은 절박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 만족이나 냉소주의에 굴복하기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가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필연성이나 운명론의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오늘날 문화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화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티칸 2차 공의회 이후 모든 교황 성하께서는 그 문화 내에서, 또 그 문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초대 교회가 교회의 임무를 시작했던 그리스·로마 문화 때도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성무일도에서 매년 읽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The letter to Diognetus)의 인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2세기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이 얼마나 다른 이들과 흡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희망 때문에 자신들의 고향에서 조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웃들과 같았지만 다르게 살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다른 삶의 방식이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고 고립된 집단이라고 느끼지 않고 대신 주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몸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 자신이 공동체에 생기를 주는 원천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유혹은 “교황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행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데! 여느 때처럼 그 일을 계속 해 나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 중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기꺼이 ‘어떤 결과를 위해서?’라는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을 그냥 계속하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3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뒤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 우리가 누구를 놓치게 될지, 우리가 부여받은 소명을 위해 하느님과 우리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왔는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발적 의지, 진정한 열린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시험하는 – 그 임무가 과연 완수되었는지, 않았는지 또 어느 정도로 완수되었는지를 살펴보는 –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누가 어느 본당에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떠난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본당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본당이 그들이 필요한 봉사 활동과 촘촘히 연계되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의 복음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는 가톨릭 학교들, 종교 교육 과정과 심지어 홈스쿨링도 학생들에게 튼튼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학교와 본당 공동체내에 새로운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환경’(카톨릭 교육에 대한 USCCB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발표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가톨릭 교육의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가톨릭 학교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오늘날 학생들이 복음적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활동적인 신자가 되십시오. 진취적으로 나아 가십시오. 박애, 평화, 사랑, 정의의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6/앞으로 할 일





선

교하는 제자가 되자”의 기획 과정은 본당 차원과 본당 그룹별 차원의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제 1 단계는 사업의 주제와 활동에 대한 본당 차원의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각 본당의 위원회는 전교 사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완전하고 통찰력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통계나 재정 검토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숫자 뒤에 감춰진 더 깊은 의미를 살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즉, 신앙 생활을 포기한 신자들, 견진 성사 후 떨어져 나간 젊은이들, 변화하는 교회의 인구 분포, 교회가 아직도 다가가지 못한 그룹들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돋기위해 교구청내 사목 계획처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본당의 사업에 대한 활력 평가를 돋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2015년 여름 동안 개발해서 시험해 볼 것입니다. 둘째, 본당 자료와, 인구 분포, 지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셋째로, 요청이 있으면 본당의 자문에 응할 것입니다.

9월 초에 각 본당은 가급적 많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위에 언급한 도구와 자료 수집을 통하여 판별 작업에 들어가기를 권고합니다. 이 판별 작업이 끝난 다음, 각 본당은 본당 내에서 혹은 이웃 본당과 협동하여 선교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할수 있는 방안을 내어놓기를 요청합니다. 이 방안들은 2016년 사순 첫 주일까지 교구 사목 계획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교구의 사목 계획처와 협의를 한 몇 본당들은 보다 당겨진 시간표에 따라 그 결과를 2015년 대림 첫 주일까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당 차원의 조사가 끝난 다음, 2 단계에 들어갑니다. 각 본당은 현재의 본당 그룹을 재확인하든지 아니면 본당의 토의에 근거하여 새로 조정해 주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확인이나 재조정을 위한 교구의 사목구 사무실과의 협의를 하게 됩니다. 또 공식적으로 본당 그룹 협의체와의 기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본당들을 구별하여 각 그룹의 간사를 뽑을 것입니다. 모든 본당 그룹이 동시에 이 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몇 개의 본당 그룹을 묶어서 시간차를 두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 본당의 판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당 그룹에서 간사와

함께 토의를 거쳐 선교 활동을 보강할 계획들을 선별합니다. 그 토의 결과는 그 그룹에서 실행으로 옮길 활동 지침이 되고, 또 선교 주제와 선교 활동을 지속해서 평가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주는 의미를 목상하면서 개인적인 변화와 회두의 기회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들의 본당을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의 따스함, 그리고
복음의 매력이 충만한, 선교의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이 과정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 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본당을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의 따스함, 그리고 복음의 매력이 충만한, 선교의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는 여왕이시며 새로운 선교사업의 별이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중재를 간절히 청합시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이 믿음의 공동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교구인 볼티모어 대교구를 밝게 비추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그 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록: ‘선교하는 제자가 되자’의 진행 개요

주요 인지 사안들:

- 변화를 가져올 주요 계획, 본당 그룹 조정과 복음화 노력에 대교구의 모든 교회가 참여합니다 – 동시에 이미 비슷한 계획을 위해 투자해 온 그간의 시간과 노력들을 존중하며 가능한 분야에 이를 혼합시킬 것입니다.
- 과거 수십 년 동안 ‘본당 사목 계획’을 위한 작업들이 있어 왔는데 – 우리는 이 노력들이 창출해 놓은 지식들을 존중하고 그 기반 위에서 ‘복음화’를 현 시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핵심이 되는 믿음들:

- 효율적인 복음화는 첫째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전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전교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자기 평가하고 이해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각 본당은 이와 관련한 몇 개의 개념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는 끊임없는 평가와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본당이나 본당 그룹들이 그들이 현재 직면한 상황과 진행 과정을 측정하고 어느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요소를 적용하려 합니다.
- 효율적인 복음화를 위해서는 또 우리의 자원들이 자기 보존적인 차원을 벗어나 이 목적을 향해 모두 쓰여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각 본당이 본당 그룹들과 어느 정도 연대하기를 기대합니다.

I. 1단계: 본당 차원의 평가

- 각 본당은 대교구가 준비한 평가서를 사용하여 자체 평가를 합니다.
- 이 평가서는 본당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어떻게 본당과 본당 영역 내에 있는 이들을 이해하고 대해 왔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집할 것입니다.
 - 복음화
 - 사목적 배려
 - 봉사와 정의
 - 전례와 성사
 - 사도직과 교육
 - 단체와 친교
 - 재정적인 유지
 - 건물
 - 성직자/지도자/행정.

- c. 평가 자료들은 위에 열거된 분야 내에서 달성 목표와 관련한 논제들을 질문할 것입니다. 달성 목표는 복음화와 선교 지향적인 본당으로 특정지어지는 야심찬 속성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또 본당이 현재와 미래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각 목적들에는 그에 준하는 표준점과 목표점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들이 자신들의 조사 결과가 주어진 표준점에 견주어 보았을 때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설명서도 제공될 것입니다.
- d. 평가 작업은 본당의 직원들, 지도자들, 본당 신자들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들의 반응을 포함해야 합니다.
- e. 평가 작업이 완결되면 사목회나 해당 팀에서 이 반응들을 재검토하고 주어진 표준점에 견주어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검토에 기준하여 사목회나 해당 팀이 표준점에 가까워질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합니다.
- f. 이 과정에서 각 본당은 특히 어느 분야의 일이 본당이 개별적으로 달성하는 것보다 이웃의 본당과 어느 정도 협동을 할 때 표준점에 다다르거나 그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어느 본당이 그 일을 보완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합니다.
- g. 볼티모어 대교구가 각 본당에 지원할 것들: 평가 절차를 위한 안내 책자, 회의 진행 견본과 권장 도서, 평가 도구와 설명문, 본당과 구역 자료 및 외 지도들
본당이 볼티모어 대교구에 보내야 하는 것: 완결된 평가 결과

II. 2단계: 본당 그룹 차원의 계획

- a. 그룹 조직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룹에 따라 활동성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본당 차원의 평가 다음 단계로, 각 본당은 협존하는 그룹 체계를 그대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본당에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한 필요에 따라 그룹 재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룹 관계 설정을 위한 교구 사무처와의 권고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 b. 공식적으로 그룹을 만들고 그룹 차원의 계획서 작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본당들을 선별하고 간사를 정할 것입니다.
- c. 본당 차원의 평가서 응답을 참고하면서, 각 본당 그룹은 간사와 함께 그룹 차원의 목표와 기준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고 그 목표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d. 그 결과물은 실행에 옮겨질 행동계획서가 될 것이며 목표점을 향해 가는 과정을 지속해서 평가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 e. 그룹 차원의 계획 과정은 일 년 안에 완결하여야 합니다.
 - f. 볼티모어 대교구가 그룹에 지원할 것들: 평가 절차를 위한 안내 책자, 회의 진행 견본, 간사 양성, 그룹 계획 참고, 구역과 공동체 자료 및 지도들
- 구역이 볼티모어 대교구에 보낼 것: 완결된 그룹 계획서

III. 자료들

- a. 각 본당의 원활한 토의를 위해 인구 통계와 개발 자료, 과거 본당 통계 자료들과 계획 도구들을 최대한 자세히 제공할 것입니다.
- b. 필요에 따라 특별한 주제에 관해 대교구청의 팀으로부터 본당이나 그룹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각 본당은 이미 본당 차원이나 그룹 차원에서 진행해 오던 전략적인 시도들을 통합하여 그 지속성을 유지하고 목적 달성을 기여하기를 촉구합니다.

IV. 일정

- a. 대교구 내의 모든 본당들은 2015년 가을에 이 평가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본당 사정에 따라 일정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b. 2015년 여름 – 사목 계획처에서 각 본당들이 사용할 평가 도구와 설명서, 자료, 계획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 c. 본당의 준비
 - i. 일찍 시작한 본당 시간표: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 말
 - ii. 그 외의 본당 시간표: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
 - iii. 마감 날짜까지 할 일: 대림 첫 주일이나 (일찍 시작한 본당) 사순 첫 주일 (그 외 본당)
 - 1. 평가 완결
 - 2. 그룹 구성
 - 3. 성탄이나 부활시기에 맞춘 계획서 완성 자축 준비
- d. 본당 그룹 차원 계획
 - i. 빠르면 2016년 1월에 시작 (본당의 진행에 따라)
 - ii. 일년 계획



선교하는 제자의 길을 비추어 주는
밝게 보이는 빛



www.archbalt.org

www.facebook.com/archbalt | www.twitter.com/archbalt | www.instagram.com/archbaltimore